

June 2022. eMFORCE Report

지프, 코란도, 코란도C, ...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더블드래곤, 토레스

2022. 06. 28

쌍용자동차 History : 고군분투

- 1954년 설립된 **국내 최장수(68년) 자동차 기업**이나, 설립 이후 6번 이상 주인이 바뀌며 진통
- 1986년 [미군이 전쟁 이후 남기고 간] Jeep를 계승한 '코란도 1세대' 출시를 시작으로 1996년 '뉴코란도' 등 다양한 버전의 코란도 시리즈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2015년 '티볼리'로 소형 SUV 시장을 주도하는 등 저력을 과시



*출처: 나무위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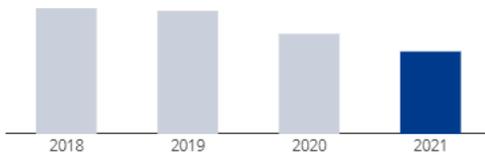
But,

2021년 12월 기준, 쌍용자동차 재무정보를 보면
매출액 점진적 감소,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모두 손실

재무 정보

매출액	2.43 조	영업이익	-2,612.61 억	당기순이익	-2,579.44 억	자산	1.86 조
부채	1.94 조	자본	-805.97 억	배당수익률	- %	종업원수(명)	4,517

매출액 2.43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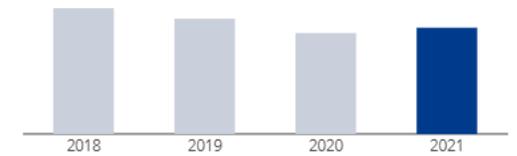
영업이익 -2,612.61 억



당기순이익 -2,579.44 억



자산 1.86 조



IFRS / 연결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 Deep Search (<https://www.deepsearch.com/>)

‘쌍용차 희망’ 토레스...무쏘의 화려한 부활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이후 7년 만에 내놓은 ‘완전 신차’ 토레스(TORRES)가 가격·디자인 파격을 통해 국산 SUV 시장에 충격을 줬다. 토레스는 17년 전 단종됐던 무쏘의 후속 모델에 해당한다. 차명은 **세상의 끝**, 남미 파타고니아 남부의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절경이라 불리고 있는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에서 유래했다.

토레스는 지난해 6월 J100(프로젝트명)이라는 이름으로 디자인이 처음 공개됐다. 당시 “이렇게 나오면 대박”, “이대로 나오면 바로 산다”는 호평을 받았다. 1년 만에 모습을 나타낸 토레스는 사전계약 첫날인 지난 13일부터 돌풍을 일으켰다. **첫날에만 1만2000대가 넘게 계약**됐기 때문이다. 쌍용차 역사상 사전계약 대수가 첫날은 물론 사전계약 기간 통틀어서 1만 대를 넘어선 건 토레스가 최초다. 사전계약에서 대박을 터트린 토레스는 **기업희생 절차를 밟으며 새 주인 찾기에 나선 쌍용차의 희망**이 됐다.

토레스는 ‘무쏘의 후속’답게 ‘정통 SUV’에 미래지향적 이미지와 세련미를 덧붙였다. 복고(Retro)를 새롭게(New) 즐기는 뉴트로(New-tro) 디자인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쌍용차의 새로운 디자인 비전 및 철학인 ‘파워드 바이 터프니스(Powered by toughness)’를 적용했다. 도심형에 초점을 맞춘 기존 ‘소프트코어’ SUV와 달리 쌍용차 고유의 헤리티지(Heritage)인 강인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통해 ‘정통 하드코어’ SUV 스타일을 완성했다. 짧고 반복적인 세로 격자 모양의 버티컬 타입 라디에이터그릴, 스키드 플레이트 일체형 범퍼를 통해 강인하면서 와일드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그릴과 이어지는 아웃 렌즈 클린 타입 LED 헤드램프는 정통 SUV에 어울리는 카리스마를 발산하면서 미래지향적 이미지도 갖췄다. 후면부는 스페어타이어를 형상화한 핵사곤 타입 리어 가니쉬와 리어 LED 콤비네이션 램프를 통해 정통 SUV 스타일과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모두 추구했다...

...두 번째 대박 비결은 ‘가격 파괴’에 있다. 토레스는 준중형 SUV 코란도가 2253만~2903만원, 대형 SUV 렉스턴이 3717만~5018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000만 원대 초중반대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됐다. 예상은 빗나갔다. 토레스는 **T5 모델이 2690만~2740만 원, T7 모델이 2990만~3040만 원**에 나온다. 2000만 원대로 준중형 SUV 가격대에 해당한다.

보기 드문 하드코어 SUV로 부활한 쌍용 토레스는 크기와 품질이 중형 SUV에 해당하지만 가격은 준중형 SUV 수준으로 책정해 가성비를 끌어올렸다. 쏘렌토·싼타페는 물론 스포티지·투싼과도 경쟁한다.

출처 : 매경이코노미 (2022.06.24),
<https://www.mk.co.kr/economy/view/2022/552519>

사전계약 첫 날 12,000대 돌파! 사전계약 2주만에 20,000대 돌파!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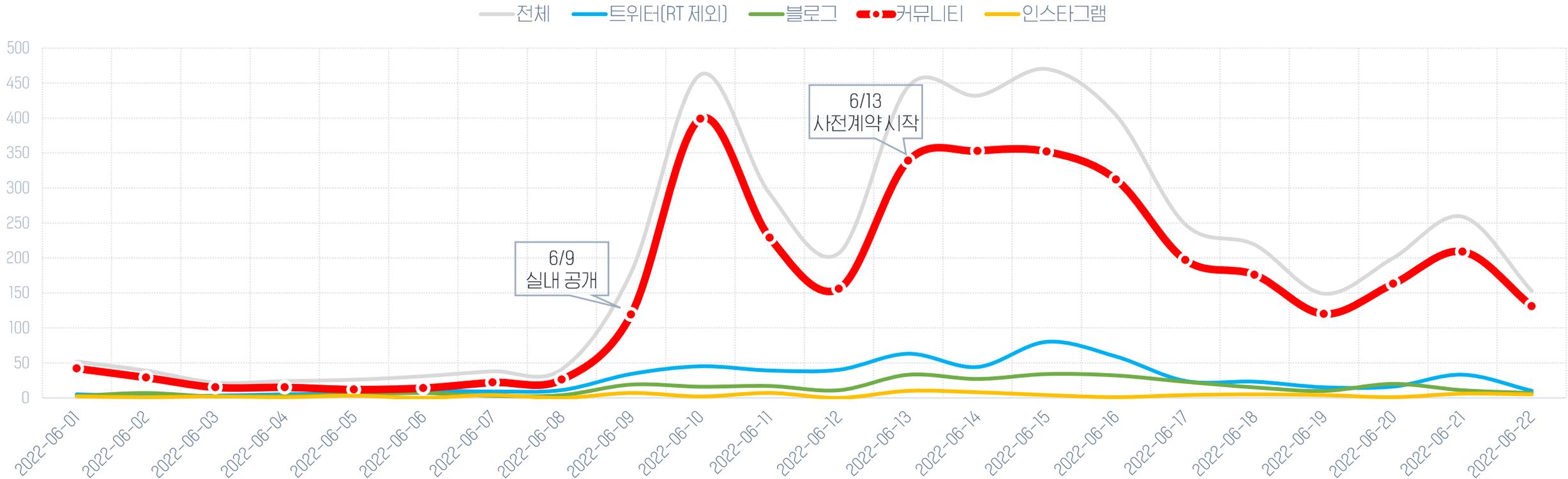
길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장그래 -

쌍용 토레스에 대한 관심은 SNS 채널 중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수 회사

- 커뮤니티 채널은, 네이버/다음카페 및 보배드림, 디시인사이드 같은 동호회 성격의 사이트를 의미
- 자동차에 대한 언급은 통상 가볍게(150자) 언급할 수 있는 트위터가 아닌, 커뮤니티 채널을 중심으로 회자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실제 구입 수요 및 니즈가 잠재된 소비자들이 출시 시점에 (정보 탐색을 위해) 온라인 카페 등으로 대거 유입되기 때문
- 따라서 출시 초기 SNS 반응을 보려면 “안녕하세요”, “가입” 등의 키워드를 KPI로 잡고 반응을 추적하는 것도 유의미한데 이는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서두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

2022.06.01 ~ 2022.06.22 “토레스”에 대한 채널별 SNS 언급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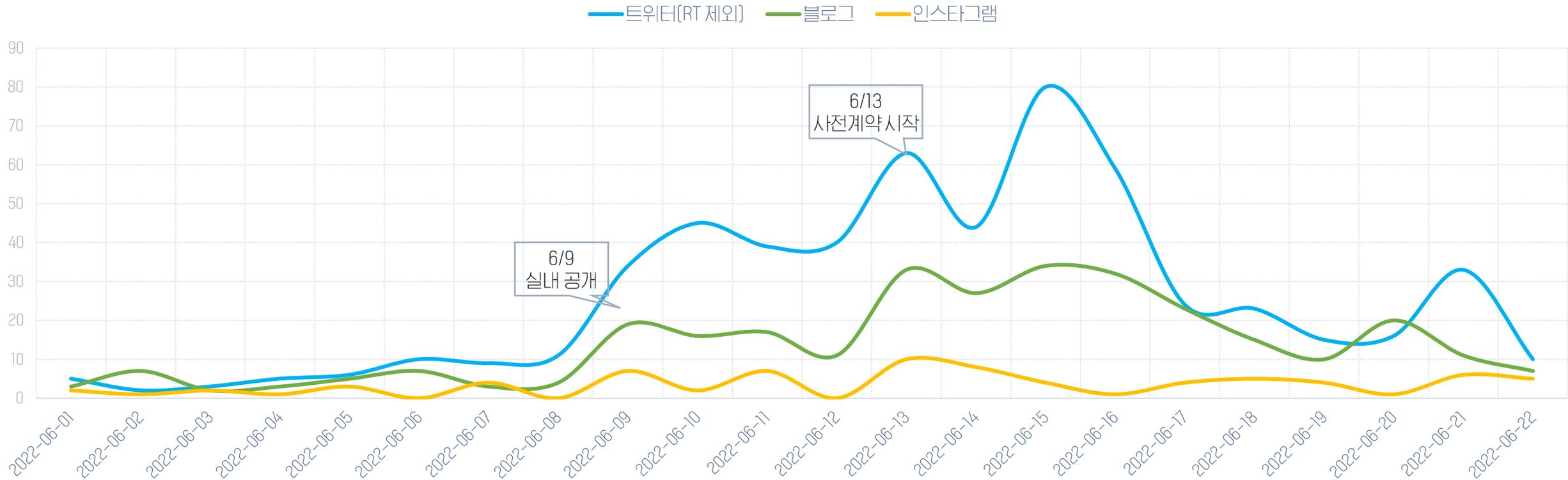


*출처 : 토레스 - 이벤트,event,news,맛집,선수,손흥민,토틀넘,아구,축구,스포츠,관계자,특정왕,소비자,첼시,리그,리버풀,돌풍,구원투수

커뮤니티 채널을 제외하고 보면 트위터 & 블로그 채널에서도 사전계약 전후로 뚜렷하게 관심 제고

- 다만, 아직은 실 구입자 및 잠재소비자 외, 일반 대중들에게 회자될만한 요소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커뮤니티 채널 대비 트위터, 블로그 등에서는 정보량이 많지 않은 수준
- 7월에는 실 제품이 매장에 들어온다고 하니 그 이후 관심 증가세를 지켜봐야 할 것

2022.06.01 ~ 2022.06.22 “토레스”에 대한 채널별 SNS 언급량 추이



*출처 : 토레스 - 이벤트,event,news,맛집,선수,손흥민,토틀넘,아구,축구,스포츠,관계자,특정왕,소비자,첼시,리그,리버풀,돌풍,구원투수

“쌍용이 이걸 만들다니 ㅋㅋㅋ 진짜 디자인만큼은 경쟁차 다 씹어먹을듯”

“진짜 **조선의 디펜더** 인듯 디자인은 너무 좋네요ㅎㅎ”

“토레스 렉스턴 보다가 스포티지를 보니 참 저것도 디자인이라고 ㅋ”

“디자인 존나 잘 뽐음 전면에 쌍용 로고도 없고 디자인 이쁘고 후면 트렁크 감성 ㅅㅅㅅㅅ **ㅅㅅㅅ** ㅋㅋ”

“**상남자 오프로드** 디자인 직접 봐야알겠지만 사진상 디자인은 **ㅅㅅㅅ**로 잘뽐은듯”

“제원 옵션 압살하고 디자인도 압살하는데 가격까지 파괴시켜버림 ㅋ 카페가보니까 토레스로 난리네 ㅋㅋ”

“고민된다 차만들기의 달인 흥기냐 **이국적디자인 넓은 집칸**의 토레스냐”

“자신만의 강점을 잘 캐치해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렉스턴 칸이나 토레스 둘다 맘에 드네요 특히 디자인이 **상남자 다운게..**”

“많이 팔릴것같지않나요? 쌍용에 관심 1도 없던 저도 **디자인보고 구매욕이 뽐뽐**하네요”

“현재분위기로는 **진짜 회사를 살리는 느낌**인데 내년 디자인팀 성과금 장난 없겠네요 회사살리는데 안주는것도 이상”

상남자, 조선의 디펜더

“쌍용 실내는 90년대 유광 플라스틱 감성이었는데 토레스 보니 조금 나아진 듯..”

“앞모습은 이보크느낌도 나고 **실내는 요즘 아우디 스타일**이네요”

“실물 봐야겠지만 실내 사진상으로 투싼보다 훨 나아보이네요”

“아반떼 다음달 출고예정인데 토레스 존나이쁘다 + **실내도 쌍용치고 스테츠** 마음같아선 당장 바꾸고싶은데”

“포레스트 그린 실내는 무조건 황토베이지 해라 (**벤들리 베이지색 비슷**) 이렇게 하면 여자친구 생긴다 ㅋㅋ”

“외형 멋지고 실내도 좋고 가격대 적당하고 투싼같은거 기다릴바에 저거살까 싶다 진짜”

“실내 보소 ㄷㄷㄷㄷ 현기차 다바름 쌍용 토레스 나가신다 현기 쫓았쥬???”

“2600에 저 멋진 디자인 차체는 중형 ㄹㅇ 실내도 말해줘해 **핸들 예쁘던데** 근데 난 코란도 후속이 더 기다려진다 kr10 그게 더 예쁨”

“외관 녹색에 실내 그레이vs카키 고민중ㅋㅋㅋ”

“디자인도 실내도 가격도 좋은걸”

쌍용치고 스테츠 (상타치, 매우 수준 높음)

어느 산업이든 디자인에 대한 만족/불만족은 철저하게 **취향**의 영역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디자인이 좋은 이유를 스스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일정 부분 **“대중의 방향”**을 따르기도 한다.
즉, 인기가 있는 제품일수록, 갑작스럽게 회자되는 제품일수록
여론과 다른 자신만의 소신(?)을 강력하게 드러내기 어려운 법이랄까.

그런데 이런 감안요소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주의깊게 봐야하는 부분은 있다.
기업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자발적 **연상, 수식** 표현을 자발적으로 **생성/공감/공유**하는 경우이다.

토렌스를 예로들면, **“상남자” “조선의 디펜더”**라는 표현이 딱 그렇다.
제품에 소비자 스스로 수식어를 붙여주고 그것이 공감을 받아 공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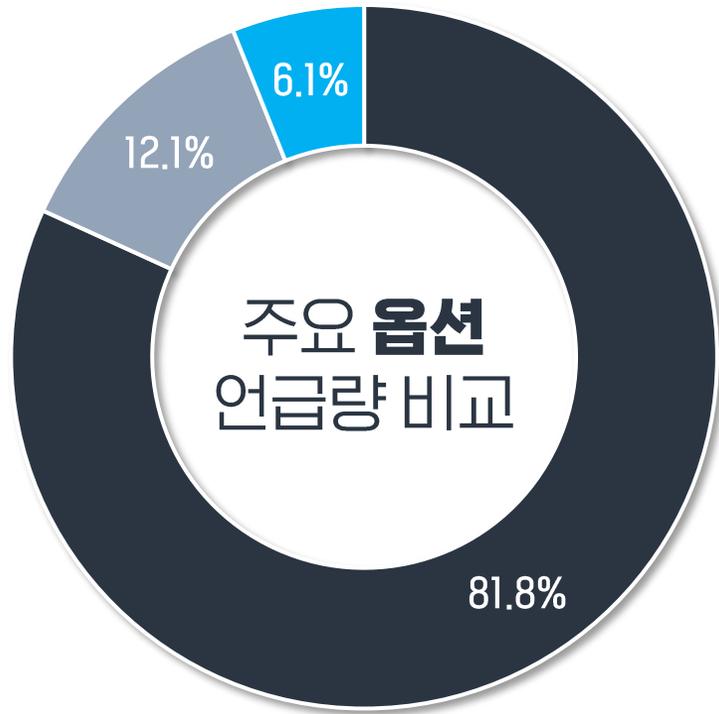
그 중 특히 **“조선의 디펜더”**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 이유는
토렌스에 대한 초기 부정적 여론 중 다수가 Jeep, 디펜더 모델을 닮았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단번에 희석시키는 표현을 다수가 단번에 개의치않고 사용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조선” 등 단어 자체에서 담긴 **“재미”**라는 요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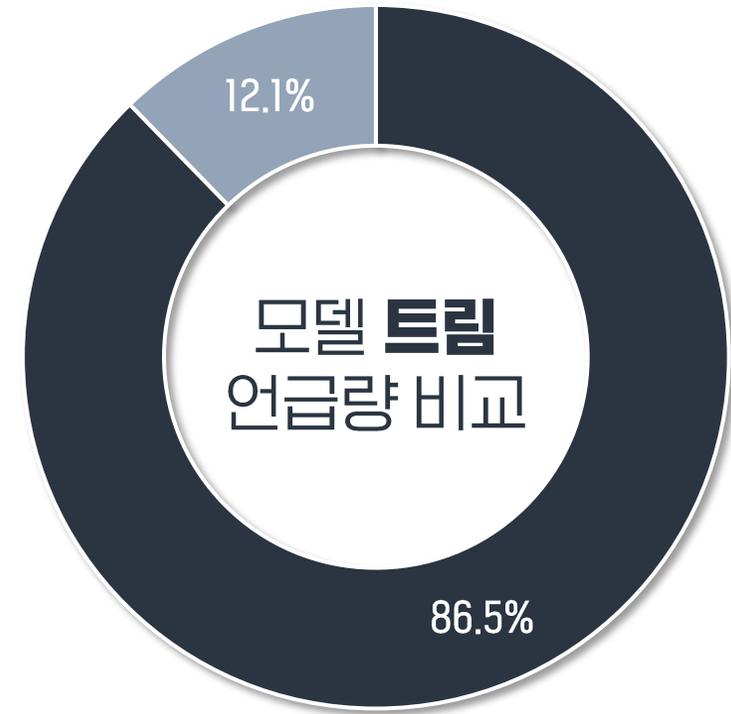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긍정, 부정을 한 쪽으로 치우쳐 평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토렌스에 대한 평가에 대중의 **“재미”**가 가미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이 된다.

주요 옵션 및 트림 언급량 비교

- 옵션 중에서는 '딥컨트롤 패키지'에 대한 언급량이 가장 많았으며 트림 중에서는 T7 언급량이 압도적



■ 딥컨트롤 ■ 벨류업 ■ 벨류업 딥컨트롤



■ T7 ■ T5

가솔린 모델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우려..

“qm6 lpg 대기중인데 토레스 조금 이뻐보이긴하네 근데 가솔린이라.. lpg랑 **유지비** 차이 남?”

“토레스 계약하면서 가솔린 터보엔진 **예열,후열**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고유가**에 하브라도 나오면 몰라도 가솔린만 나온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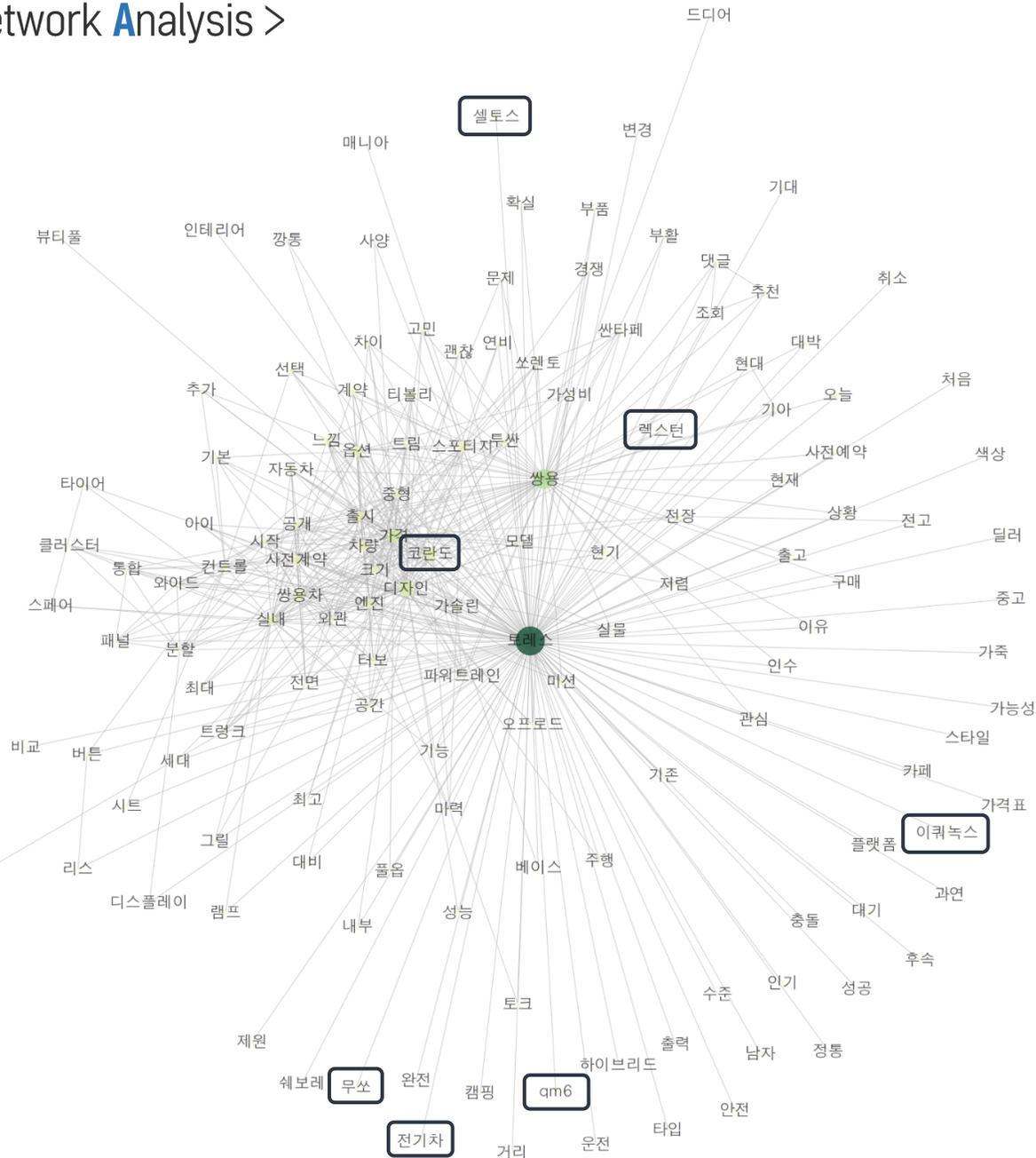
“가솔린은 **넘 비싸서** lpg 개조 많이 할거 같은데..”

“1.5 가솔린은 좀 ㅋㅋ **최소한 2.2디젤** 넣었어야 됐음”

“하이브리드냐 남자다운 디자인이냐... 고민입니다. 첫 차이니만큼 구매하면 오래 타게될텐데..
가솔린 차량 비중을 줄여나가는 추세에 따라 순정가솔린차량이 어떻게 될지도 걱정이구요.”

“가솔린은 넘 비싸서 lpg **개조 많이 할거 같은데..**”

고유가, 하이브리드 추세



그 외에도

**셀토스, 렉스턴
코란도, 무쏘
이쿼녹스, QM6,
전기차 등이**

다양하게 비교되거나
단순 동반 언급

경쟁 차종 언급량 비교

- 경쟁 차종 언급 내용을 보면 스포티지 > 투싼 > 티볼리 순으로 언급량이 많게 나타남
- 쏘렌토, 싼타페 역시 동급 모델은 아니나 전장, 전고 등 크기를 가능하기 위한 용도로 다수 동반 언급

단일 키워드	언급량
스포티지	250
투싼	185
티볼리	174
쏘렌토	98
싼타페	71
렉스턴	61
전기차	56
셀토스	55
qm6	49
이쿼녹스	47
지프	40
하이브리드	39
아반떼	31
니로	30
디펜더	23
랜드로버	21
KR10	19
베뉴	14
싼타페	13
쏘렌토	12
쏘나타	10

경쟁 차종 동시 언급 조합	언급 비중
티볼리	19.7%
스포티지	11.6%
투싼	9.1%
스포티지 투싼	7.9%
QM6	7.7%
KR10	5.0%
쏘렌토	3.8%
싼타페	3.0%
트레일블레이저	2.9%
아반떼	2.9%
디펜더	2.3%
QM6 스포티지 투싼	2.1%
싼타페 쏘렌토	1.8%
싼타페 쏘렌토 스포티지 투싼	1.6%
쏘렌토 스포티지	1.4%
랜드로버	1.1%
QM6 스포티지	1.1%
티볼리 KR10	0.9%
디펜더 랜드로버	0.9%
티볼리 스포티지	0.7%
티구안	0.7%
싼타페 투싼	0.7%
싼타페 QM6 투싼	0.5%
QM6 투싼	0.5%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경쟁 차종**”을 언급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공급자, 즉 제조사 입장에서 보는 “동급 차종” 이라는 것과
매우 **상이하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공급자 측면에서 SUV를 *배기량에 따라*, 혹은 *가격에 따라*,
그리고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 구분한다고 해도

소비자는 그러한 기준들을 너무도 가볍게 무시할만큼
철저하게 즉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소비자가 토레스를 언급하면서 **쏘렌토나 싼타페**와 비교,
아니 꼭 비교가 아니더라도 **동반 언급**한다는 것은
아마 당장 토레스로의 이탈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소비자 인식상 다른 트림의 차종이 함께 고민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즉, Consideration set으로 묶인다는 것은

언제든 이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Competition

토레스 브랜드에 대한 초기 Consideration Set structure 탐색

- 한 제품을 얘기할 때 경쟁 관계는 생각보다 **다층적**으로 이뤄져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경쟁 관계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시기별로 달라지는지를 초기에 파악해야 이후 구체적인 Tracking이 가능



Race area 04

당장 구매? 존버? 시기 경쟁
Value Competition

도로에 차량이 마구 돌아다닐 때쯤 급증 가능

Race area 03

쏘렌토, 싼타페 등 이종 경쟁
Out of Category Competition

영끌해서 구입하려던 소비자들은 잠시 멈칫!

Race area 02

투싼, 스포티지 등 동급 경쟁
In Category Competition

일부는 벌써부터 이탈 조짐.. 디자인의 힘?

Race area 01

티볼리, 코란도 등 내부 경쟁
Cannib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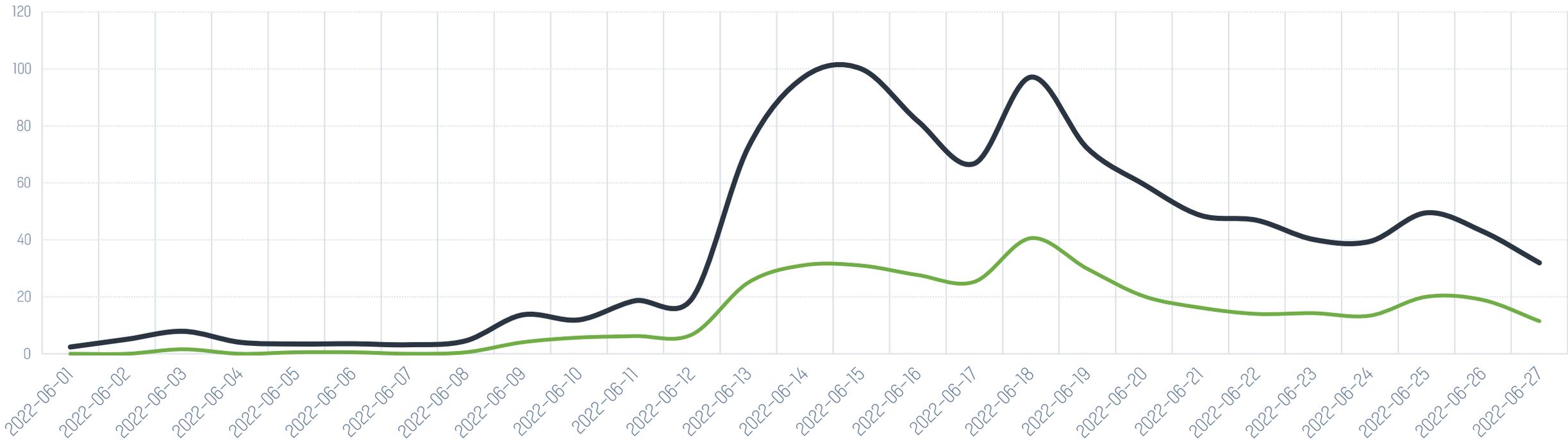
신규유저 증대, 자사내 모델 이동 크지 않을듯

토레스에 대한 네이버 전체 검색 추이

- 사전계약 실시 시점과 실내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검색량 증폭

토레스에 대한 일별 네이버 검색 추이

— 토레스 — 쌍용 토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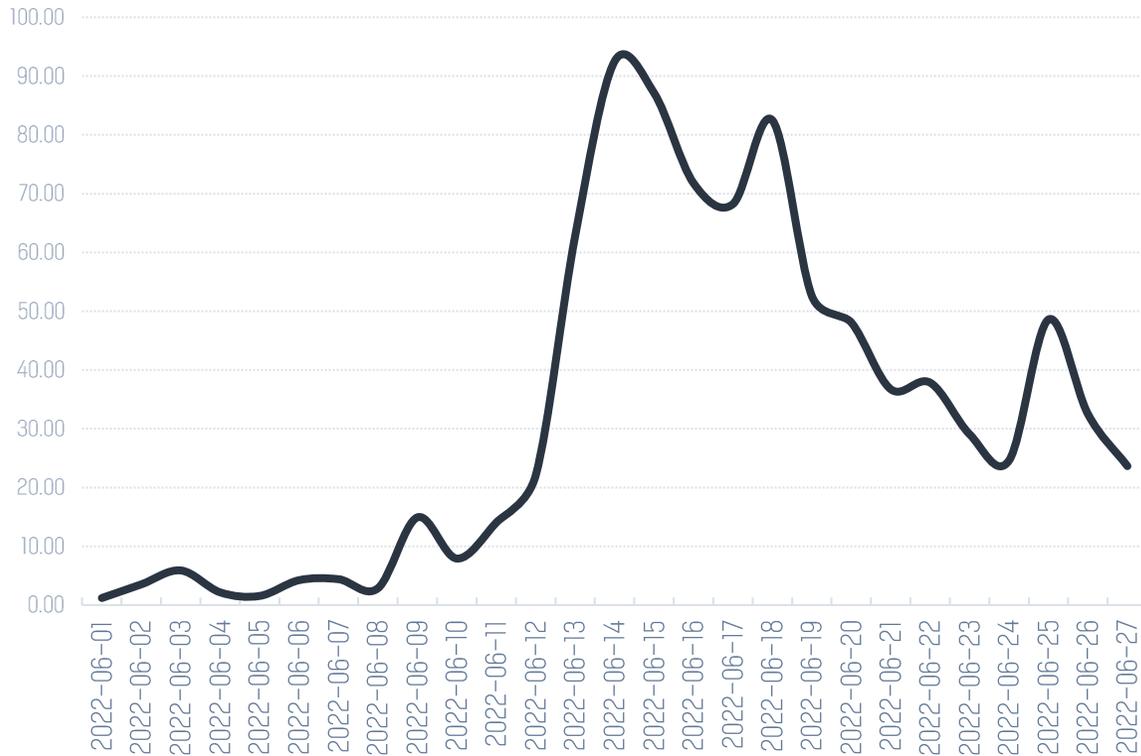


*출처: 네이버 데이터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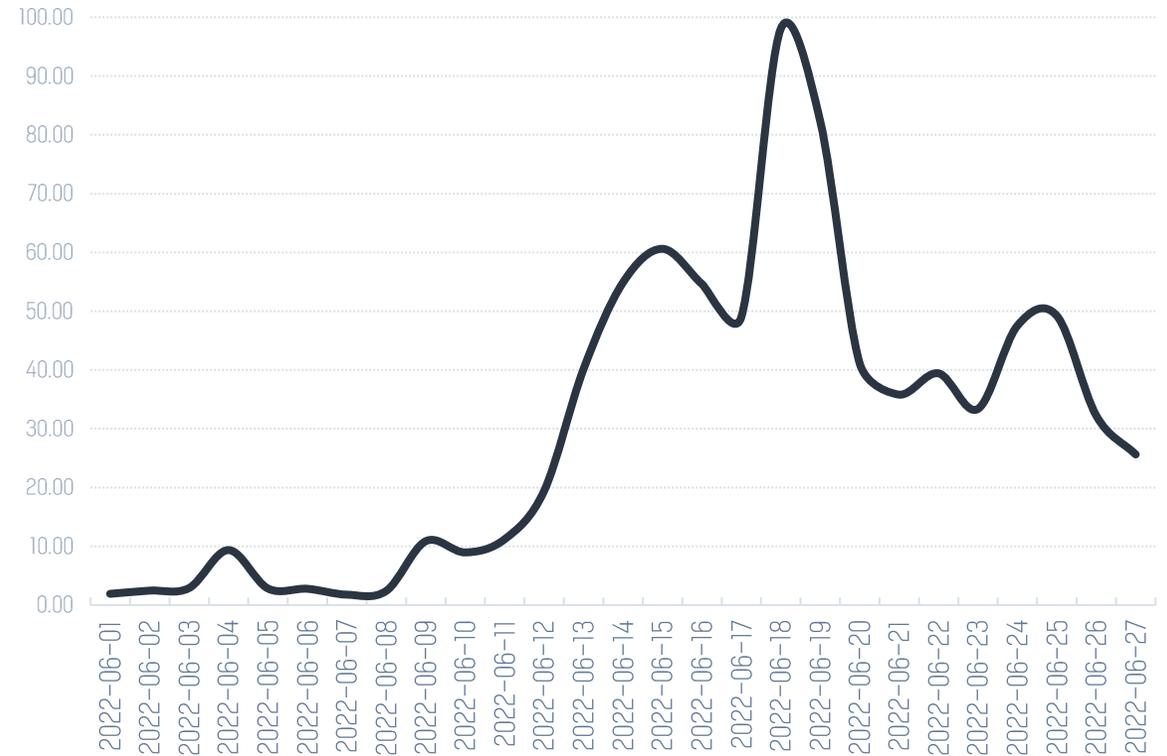
토레스에 대한 성별 검색 동향

- 남성의 경우 사전계약 시점에 검색량이 가장 높으나, 여성의 경우 이후 실내 공개 시점에 증폭

토레스에 대한 “남자” 네이버 검색 추이



토레스에 대한 “여자” 네이버 검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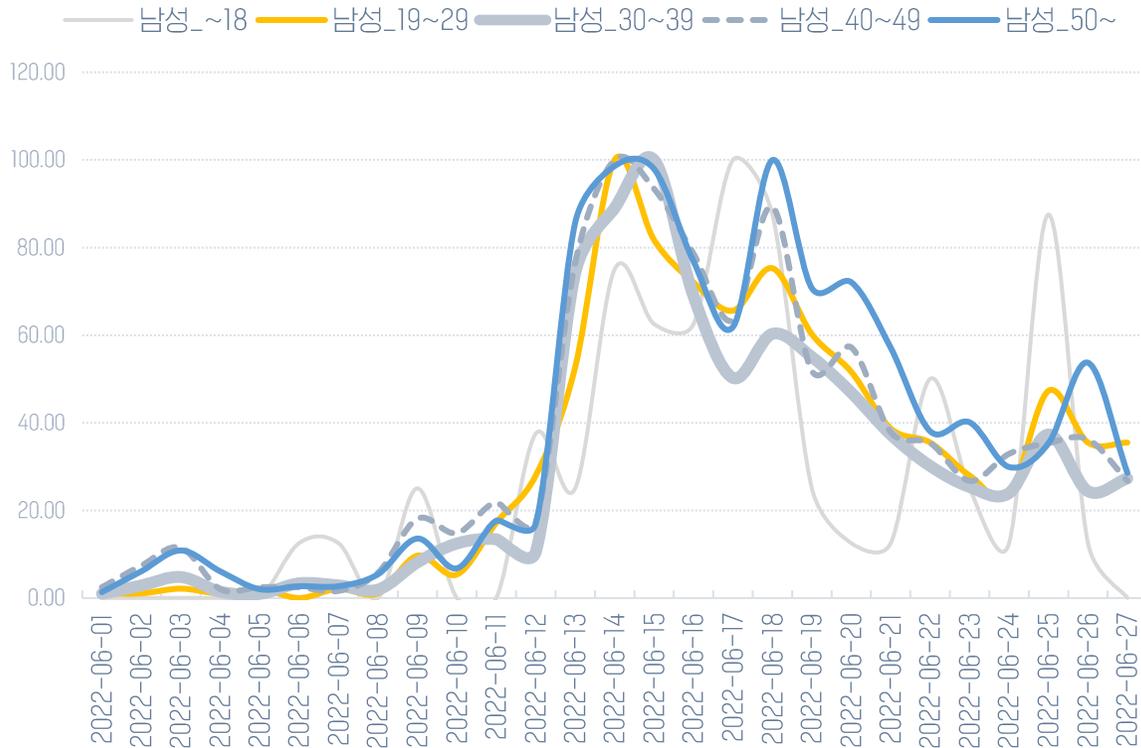


*출처 : 네이버 데이터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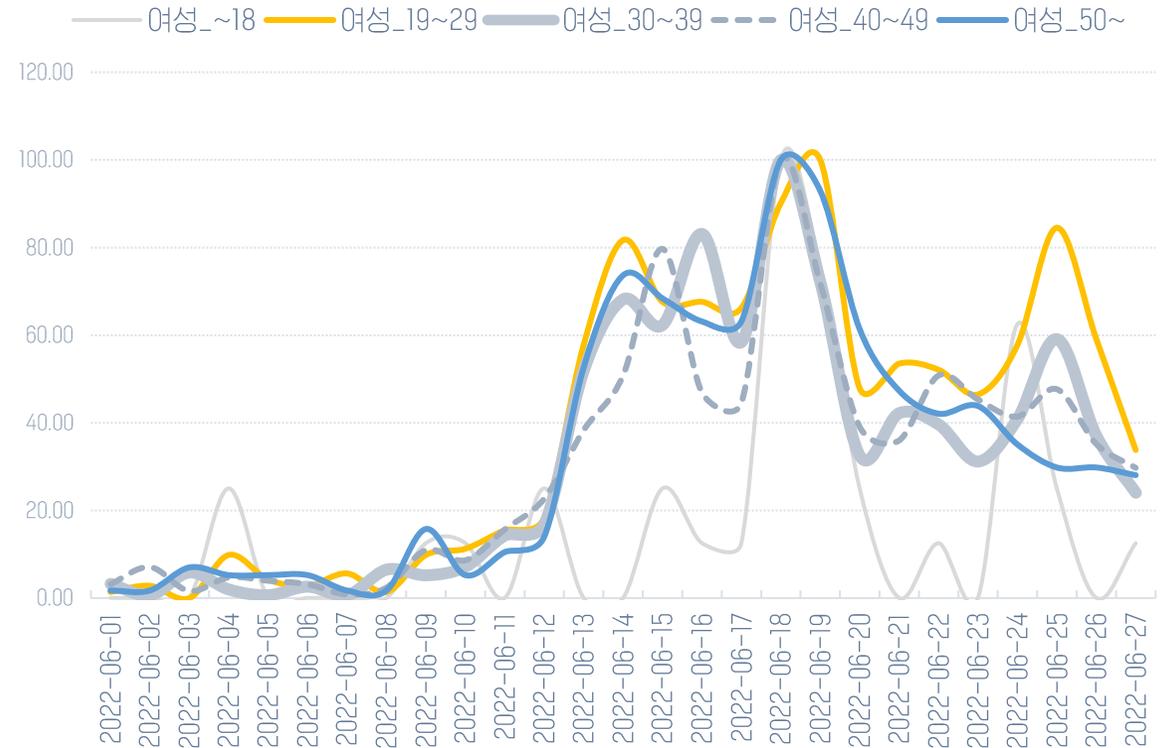
토레스에 대한 연령별 검색 동향

- 참고로, 연령별 검색 추이는 각각 총 검색량이 상이하므로 절대 비교 불가, 해당 시점에 특정 연령층의 검색량이 높다는 식의 해석은 불가하며, 검색 추이로만 비교 요망
- 전반적으로 30대, 40대의 검색량이 타 연령 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교적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

[남성] 토레스 연령별 검색 추이



[여성] 토레스 연령별 검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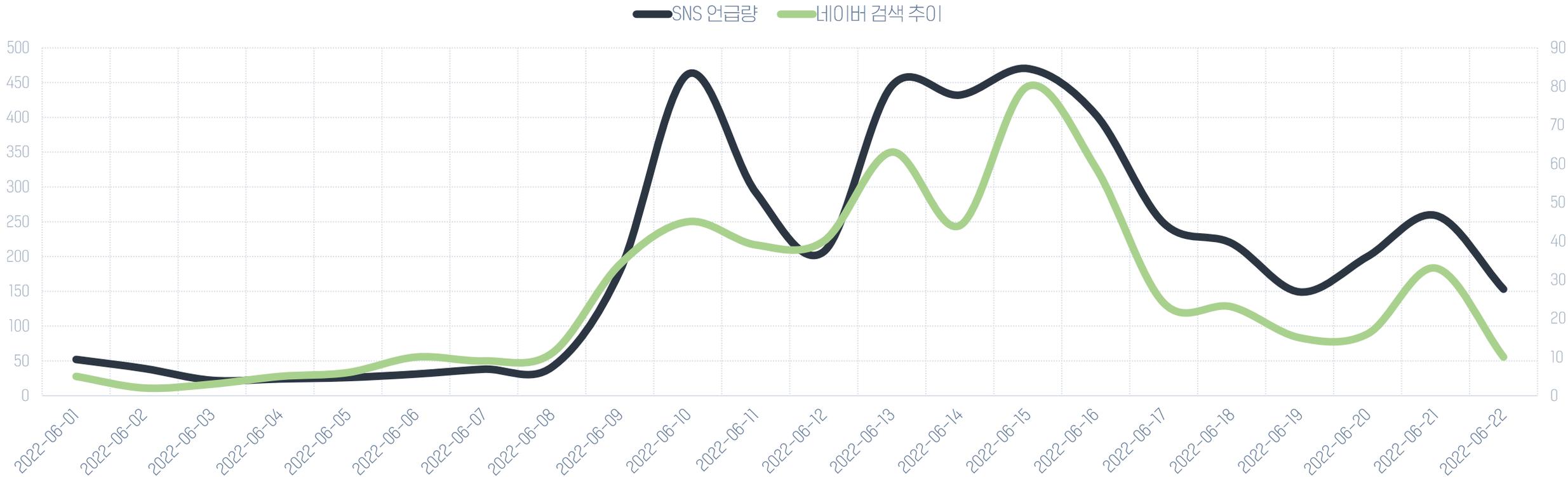


*출처 : 네이버 데이터랩

SNS 언급량 Vs. 네이버 검색 추이

- SNS 언급량은 높게 유지되는데 비해 네이버 검색 지수 추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
- 초기 시점이라 당장은 크게 비교되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의미한 비교 자료가 될 것
→ 즉, SNS 언급량은 꾸준히 유지되는데 비해 검색 추이는 이후 잠잠해질수도..

토레스에 대한 SNS 언급량 및 네이버 검색 지수 추이 비교



“고생하셨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는 14개 정도로 많지 않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스웨덴, 중국, 인도, .. 등등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다.

기아가 현대에 흡수되면서 싸잡아 **현기, 흥기**라 불리우고 그 뒤를 ‘르쌍쉐’가 따른다.
이 작은 나라에 국내브랜드로 치부되는 것만 5개사가 존재하고
전 세계적으로 제조량 순위를 따지자면 **7~8위**가 된다고 한다.

이런 나라에서 **70년 가까이 살아남은 최장수 기업은 ‘쌍용’**이다.

내수용이지만 스테디셀러인 **코란도**가 있고, 한 때 반짝이었지만 프리미엄 전략이 성공했던 **체어맨**이 있으며
티볼리로 CUV 시장의 지평을 열었음은 물론 그 치열한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했고
아픈 기억이지만 치열한 농성으로 “**쌍용사태**”라는 안타까움으로 시대의 한 권을 좌지우지하기도 했다.

그들이 출시한 **토레스**는 아직 새로운 인수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 나왔음에도
역대 최대 사전계약자들(2주만에 렌트, 리스 등을 제외한 20,000 대 이상)을 모집했으며
국내외에서 일부 “Jeep의 아류”라는 비난을 받고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찬사를 받고있다.

편파적이고 편향되어 있지만 나는 토레스가 잘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꼭 보란듯이 살아남는 브랜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게 이 짧은 보고서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날아..

모든 것이 무너져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질 않아
까맣게 드리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대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 <미생> OST -

T o b e C o n t i n u e d . . .

얼마나 훨훨 날아갈지 두고 봐주겠어!!

E n d O f D o c u m e n t

Contact Us

Website URL <http://bigdata.emforce.co.kr>

T 02. 6177. 1871 eMAIL khbak@emforce.co.kr